

언어상대성 원칙의 역사 인식론적 토대 문화 언어학을 위한 서설

김성도
(고려대 언어학과)

1. 서론

언어는 인간 정신의 내부 세계를 표현하고 현상적 외부 세계의 사건과 사태를 지시하고 기술하는 데 쓰이는 복잡한 매체이다. 인간은 언어 표현을 통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타인과의 정서적 지적 공유를 위해서만 언어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정돈하기 위해서 언어에 의탁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기 표현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언어의 다양한 사용과 기능의 공통 분모는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Deleuze 1969). 언어가 의사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의사 소통을 위해서 사용되는 투명한 도구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생각의 교환과 감정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하지만 언어는 파괴, 소외, 배제, 사유의 조작을 위한 가공할 무기가 되기도 한다. 언어의 잠재적 '파워'를 소상하게 일러주는 교과서는 없다. 우리는 단지 각자의 경험을 통하여 시도와 오류를 통해서 그 힘을 감지할 수 밖에 없다. 세계화 아울러 다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모국어와 관련된 언어의 위험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언어와 관련된 위험마저도 주시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주요어】 언어 상대성, 사피어-워프 가설, 문화 언어학, 언어와 사고, 언어와 문화, 보편성

언어 능력의 자명성, 언어 습득의 자연성 때문에, 우리는 언어의 중요성을 빈번하게 망각하거나 과소 평가한다. 사고와 정서의 표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불가결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너무나 투명하고 공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의 구조와 패턴이 자신들의 경험을 조직화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실을 말하자면 인간의 인지과정과 언어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양자를 선명하게 분리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아울러 언어는 사회적 무리의 경계를 구획하고 화자의 소속 공간을 밝힘으로써 정체성의 징표가 됨과 동시에 정체성 구성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언어는 아울러 행동을 촉발하는 운반체가 되기도 한다. 맹세, 약속, 불만, 유감 등은 언어를 통하여 표명되며, 그같은 행위에는 반드시 언어적 표상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각색이지만, 사회적 경험, 사유 구조, 기대, 행동 실천, 또는 정신적 기구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문화는 한 무리의 구성원을 다른 무리와 구별시키는 정신의 집단적 프로그램화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에 대한 이같은 실제적이면서 실용적인 시각에 기초한다면 언어는 특정 무리와 개인들에게 신념과 가치 체계를 위한 표현 수단들을 제공하면서 문화와 상호 교차함을 알 수 있다(Stroinska 2001).

언어, 사유, 문화, 이 세 개의 요소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 이론, 논의 등은 서구 언어 사상사의 중핵이자 언어학, 인류학, 철학, 논리학, 심리학 등에서 제기되는 학제적 문제로서 그 문제에 연루되어서 호출되어야 할 목록의 분량은 엄청나다. 본고에서는 이 논의를 언어 상대주의로 국한시켜 역사 인식론적 시각에서 그 핵심을 파악할 것이다. 이같은 정초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형식주의와 방법론적 과학성에 우선권을 부여한 현대 언어학에서 증발되버린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면서 문화 언어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¹⁾

1) 논자의 자료 조사 결과, 문화 언어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저서로는 다음 문헌이 유일하다.

Gary B. Palmer, *Toward a Theory of Cultural Linguistics*(Austin: University of Texas

2. 언어상대성 개념의 정의

언어 상대성 개념의 요지는 상이한 언어들의 의미론적 구조들은 근본적으로 상이하여 보편적 척도로 비교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개별 언어의 화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각에서 언어, 사고, 문화는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으며 그 결과 각각의 언어는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이다(Gumperz and Levinson, 1996; Putz and Verspoor 2000). 언어 상대성 이론의 또 다른 핵심 사항은 타성적 사고 패턴의 언어적 문화적 결정주의와 연계된다는 점이다(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상론할 것임). 우리의 모국어가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언어적 범주들은 모국어 화자의 개념적 범주들을 주물하도록 만든다(Benveniste 1958; Brown 1957, Grace 1987). 여기서 더 나아가 언어 결정주의의 극단형은 개별 언어는 특수한 방향에서 사유와 지각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극단적 상대론을 지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언어, 지각, 인지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보편소들의 증거가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독립된 다수의 사유방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약한 종류의 영향은 결코 제거될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을 탐구하는 방법론적 모델을 생산하는 일이다 (Fishman 1980).

Press, 1996). 이 책에서 저자는 인지 언어학과 인류언어학을 종합화하여 문화 언어학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고 그 구성 내용으로서 제시한 것은 인류언어학, 인종언어학, 발화의 기술 민족지학이다. 요컨대 그가 문화 언어학의 핵으로서 제안하고 있는 인종 의미론은 상이한 민족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발견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인지 인류학의 한 부분으로서 식물, 동물, 친족관계 등 상이한 문화들이 지식의 영역들을 조직화하고 범주화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이다. 하지만 이같은 문화언어학의 정의는 인류학적 시각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자가 구상하고 있는 문화 언어학에 견주었을 때 매우 협소한 개념이다. 문화 언어학은 언어와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과로서 언어와 제례 의식, 언어와 문자, 언어와 정치 체제, 언어와 윤리, 언어와 민족 등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학제적 분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소쉬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이론적 소묘가 암묵적으로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언어상대주의는 20세기 초반부터 인류학자, 심리학자, 언어학자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으며 특히 언어 인류학자들의 연구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같은 ‘아이디어’는 인간 인지의 공통성 및 인간의 유전적 선천성의 토대를 강조하면서 부상한 60년대 인지과학과 더불어, 의심을 받고 부정된다(Alford 1978, 1980; Gipper 1979). 이같은 보편주의적 시각은 언어 인류학에서 성취된, 의미론적 보편소, 색채 용어, 식물학의 명사 목록체, 친족 용어들의 보편성의 발견에 의해서 보강되었다(Berlin and Kay 1969; Kay and McDaniel 1978). 그러다 80년대 중반부터 심리학, 언어학, 인류학 등의 연구 시각에서 다시금 변화가 일어났다. 즉, 양 극단적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의 중간적 입장으로 다시 이동하면서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언어적 차이와 다양성을 보편주의와 조화를 시키는 신축적 입장으로 이동한 것이다(Gumperz and Levinson 1991). 언어와 문화의 보편적 토대를 인정하면서도 인간 발달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배려는 사회언어학과 언어 인류학, 아울러 의미와 담화에 대한 관심의 증폭으로 나타난다. 이점에서도 언어상대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필요하다.

언어 상대성은 의미에 대한 가설이다. 즉, 한 언어에서 표현되는 의미들은 다른 언어에서 표현되는 의미와 서로 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언어적 보편소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가 이루어진 바 없거니와, 색채 용어와 같은 보편적 패턴의 증거가 반드시 필연적인 일반적 함의를 내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어상대성 이론은 한낱 사변적 제스처로 치부될 수 없을 것이다. 보편적인 언어 범주화의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최근의 연구는 의미는 어휘부와 문법 안에 담혀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다. 어휘부와 문법은 오직 화자가 특수한 발화에서 의미하려 했던 바에 대한 도식적 제약을 제공할 뿐이다. 이같은 연유에서 현대의미론에서는 통상 사전 의미와 백과 사전의 정보를 구별하고 있다(Allan 2001). 사전 의미는 탈문맥화된 의미로서 구체적 텍스트에서 쓰이는 해당등재어의 다양한 경우들을 추상화시킨 의미인 반면, 백과 사전은 포괄적이며 전체적인 지식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경험의

열려진 집합을 형성한다(Eco 1976, 1984).

따라서 해석 이론의 상당 부분은 사용 이론으로 이동했다. 주요 언어 사용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험론적 연구를 수행한 진영의 학자들은 보편적이라고 생각된 상당부분들이 문화 특수적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같은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은 필연적으로 의미와 해석을 언어 사용의 맥락에 정박시킨다. 따라서 언어 상대성의 쟁점들은 맥락의 다양한 구조화와 관련된다. 요컨대 의미와 해석의 양상은 문화 특수적인 활동과 실천에 의해서 규정되며 따라서 이같은 활동들과 실천들은 다시 사회 정치적 시스템과 더불어 연계된다.

따라서 언어상대성 이론은 결코 단일한 이론 체계가 아니라, 문법과 사고의 관계에 대한 워프의 쟁점으로부터 사회 역사적 시각에서의 언어의 사용에 대한 고려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스펙트럼이자 하나의 궁류를 형성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3. 언어상대성 이론의 역사적 계보

최소한 비교 언어학의 성립 이후로, 또는 훨씬 그 이전부터, 다양한 언어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의 본질에 대한 문제, 아울러 인간의 사고 과정에서 언어의 역할에 대한 물음은 다양한 시각에서 분출되어왔다(Miller 1968). 언어상대성 이론의 꼭지점에 워프의 테제가 있지만 그것은 언어, 사고, 문화와 관련하여 서구 언어사상사에서 온축된 세 가지 테제의 합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L. M. Schlesinger, 1991).

테제 1: 모든 사유는 언어에서 진행된다.

테제 2: 언어는 사유를 축조, 굴절, 왜곡시킨다(Mertz and Parmentier 1985).

테제 3: 각각의 언어들은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사고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상이하다(Lucy 1985).

따라서 본 장에서 논자는 언어상대성의 구성항을 이루는 언어, 사유,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서구 언어사상사에서 개진된 가설, 주장, 이론의 주요 이정표를 식별하고자 한다.

먼저, 언어가 인간의 사유에 있어서 맡는 역할의 쟁점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들이 가능하다. 상식적 관점은 언어의 기능이 의사 소통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언어는 그것에 선행하여 이미 존재하는 사고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견해는 궁극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발화된 낱말들은 정신적 경험의 상징들이며 쓰여진 낱말들은 음성언어의 상징들이다. ... 음성언어가 상징하는 정신적 경험들은 모두에게 동일하다”(De Interpretatione 16a)²⁾

언어를 이성의 창조로서 간주했던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이같은 언어 개념을 그대로 수용했다. 즉, 그들은 언어의 유일한 기능을 사고의 표현과 의사소통으로 간주했으며 19세기에 이같은 견해는 언어학자 휘트니에 의해서 표명된다(Whitney 1875, 30). 언어를 사고 표현의 수단으로 보았던 그의 시각에서 획득된 언어는 정신적 작용의 결과로서 부과된다. 사피어의 은유를 빌리자면 언어는 사고의 ‘옷’(Sapir 1921, 15), 다시 말하면 언어는 사고의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이같은 언어 도구관을 뒤집어 해석하면 언어와 사유의 동체성에 이르게 되고 다음과 같은 테제로 전이될 수 있다.

테제 1: 모든 사유는 언어에서 진행된다.

이같은 주장은 플라톤을 필두로 서구 철학의 초기부터 제기되어왔다.

“생각과 말이 같은 것이 아니라 말인가, 다만 예외가 있다면,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영혼의 발설되지 않은 대화라는 것이다”(Cratylus 388)³⁾

2) 다음 번역본에 준거함. De Interpretatione. H. P. Cook(London: Heinemann, Loeb Classical Library, 1938).

이같은 생각은 중세의 유명론자들에게로 계승되거나 이들은 모든 개념들이 그것들에 부여된 이름들 이외의 다른 현실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예컨대, 홉스는 『레비아탄』에서 세상에는 이름들 이외에 보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름들 없이는 일반적 진술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설파했다. 프랑스 철학자 콩디악은 유명론자들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직 낱말들을 가지고서만 생각할 수 있다”는 진술을 남겼다(Condillac 1756).

콩디악의 사상적 계도에 놓였던 흄볼트는 언어를 사고를 형성하는 기관으로 보았으며 소쉬르는 사고에서 언어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한다.

“언어 없이는 생각은 모호하며 부정형의 구름과 같다. 미리 존재하는 관념은 없으며 언어의 출현 이전에는 아무것도 구별되지 않는다. 사고와 관련된 언어의 특징적 역할은 관념을 표현하기 위한 물질적 음성 재료들을 창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음성 사이의 ‘링크’로 사용된다는 데 있다”(Saussure 1959(1916), 111-113)

이렇듯 개념적 활동뿐만 아니라 인지 활동 역시 언어적이라는 주장은 프레게와 비트겐슈타인 같은 분석 철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된다(Chatterjee 1985; Lee 1985).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Wittgenstein, 1961/1921, section 5.6.) 아울러 이같은 언어의 결정적 역할은 비고츠키와 같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공유된다. “사고는 단지 낱말들로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사고는 낱말들을 통하여 존재하게 된다.”(Vygotsky 1966, 125)

언어들을 비교해 보면, 표현에서 사용된 음운적 재료에서 뿐만 아니라 각각의 언어가 주어진 사태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본질적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만약 테제 1과 2가 정확하다면 언어는 사고의 필수불가결한 매체이며 사고에 영향을 행사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 결론은 결국 상이한 언어들의 화자들은 상이한 사유 방식들을 갖는다는 결론에 이르거나와 그것

3) 다음 번역본에 준거함. *Cratylus*. H. N. Fowler(London: Heinemann, Loeb Classical Library, 1926).

은 세 번째 테제에 해당된다.

테제 3. 언어들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사고 내용 및 방식에 있어서 다르다.

테제 3은 워프가 부상시킨 것으로 통상 언어 상대성 원리라고 불려진다. 하지만 이같은 원리는 워프가 처음으로 창안한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유사한 견해들은 더 급진적으로 때로는 더 명료하게 피력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6세기 말 베이컨은 이미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의 관계에 지적하면서 언어와 언어 사용자의 세계관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 관계에 주목했으며 로크 역시 사고와 문화 형성에서 언어를 결정적 요인으로 파악했다(Locke 1894/1960). 하지만 언어가 언어 사용자의 문화에서 형성적 요인이라는 견해는 18세기에 콩디약과 헤르더에 의해서 가장 극명하게 피력된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사실은 이들의 견해가 분출된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라는 점이다. 이 두 명의 저자가 진척시킨 견해의 참신성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지배적인 지적 패러다임과 대비를 시켜야 할 것이다. 계몽주의 시대의 지배적 가설은 이성이었다. 이성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며 아울러 모든 인간이 소유한다는 신념이 팽배해 있었거니와 이것은 사고와 삶의 단순화와 표준화를 가져온다.

콩디약은 1746년, “언어의 성격”이라는 글에서 언어가 개인의 사고 과정 아울러 민족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모든 언어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표현한다”.(Condillac 1746, section 1) 언어는 사물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언어가 더 완벽해짐에 따라서 그와 비례하여 정신은 팽창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같은 논리에 따르면 뉴턴은 영어의 초기 단계에서 그의 과학적 발견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천재의 성공은 전적으로 언어의 진보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언어가 개선되면서 위대한 지적 과학적 능력의 장치를 가능케 했으며 아울러 대문호와 과학자들은 그들의 공헌을 통하여 언어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콩디약에 따르면 언어의 성격은 민족의 성격에 따라서 형성되기 때문에,

지배적인 성질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예컨대, 그는 붙어는 그 구성의 단순성과 명료성을 통하여 정신에 정밀성을 제공하며, 그것은 점차적으로 타성적이게 되면서 분석적 진보에 준비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붙어는 상상력에는 우호적이지 않다는 특이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와 반대로 고대 언어들은 공상과 상상을 증진하는 데 더 많이 기여했으며, 정신의 다른 작동들보다도 그같은 타성을 더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근대 철학자들의 우수성의 원인의 하나가 바로 언어라고 생각한다.

콩디악의 언어 철학이 후대 사상가에게 미친 영향은 니체의 저작에서 발견된다. “언어의 친화성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문법의 공통 철학 때문에, - 즉 유사한 문법적 기능들에 의한 무의식적 지배와 유도에 기인하여 - 모든 것은 처음부터 철학 체계의 유사한 발전과 시퀀스에 의해서 준비된다; 마치 그 방식은 세계 해석의 다른 가능성들에 맞서서 빗장을 친 것 같다. 우랄 알타이족 영역 안에 있는 철학자들은 (이곳에서는 주체 개념이 덜 발달되었다.) 세계를 다르게 볼 것이며 인도 게르만 민족과 회교도들의 사유와는 다른 사고 경로에 놓여 있을 것이다.”(Nietzsche 1966/1886: 27-28).

헤르더 역시 이같은 견해를 발전시켜 우리는 언어로 사유한다는 주장을 했다. 낱말은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는 주물로서 한 민족의 사고와 그 민족의 언어 사이에는 평행성이 존재한다. 문화는 조상에서 후손으로 언어를 통하여 전승된다. 언어는 한 민족의 집단적 보배가 된다. 언어를 인간 사고의 도구, 내용, 형식으로 간주하면서(Herder 1877 제 2권, 18), 헤르더는 언어는 인간의 가장 현저한 노동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모든 언어는 민족 정신의 반영으로서 이같은 정신 상태의 구조와 내용에 해당된다. “모든 민족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말을 하며 아울러 그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생각한다”(1877 제 7권, 337). 각각의 언어는 민족 정신의 지고의 표현으로서 민족 정신과 동일시되며 따라서 언어는 한 민족의 역사, 과업, 기쁨과 슬픔의 거울이 된다. 각각의 언어는 우리의 세계 관점을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어느 시각이 다른 시각 보다 더 정확한지, 어느 언어가 진리에 더 가까운 것인지, 어느 것이 더 낡은 현실의 그림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없다. 그에게 모든 언어는 소중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 경험의 상이한 양상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언어, 사고, 문화에 대한 이론적 종합은 19세기에 훔볼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언어와 문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훔볼트의 견해는 헤르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의 언어학사 연구에 따르면, 콩다약과 디드로를 비롯한 당시 프랑스 학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신세를 졌음이 해명되었다(Aarsleff 1988). 여기서는 최근의 훔볼트 언어사상의 연구물을 참조하면서 언어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그의 견해를 종합해 보자(Brown 1967; Trabant 1992, 1999).

훔볼트는 언어를 사고가 생산되는 활동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인지 활동으로서 도입한다. 언어는 사고의 음성적-정신적 생산이다. 그것은 동시에 소리와 사고의 두 가지 현실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원적 과정은 아니다. 소리와 사고는 이같은 활동 안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리는 사고이며 사고는 소리이다. 그래서 그는 언어 생산을 인지 작용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반성과 분절의 종합으로 불렀다(Humboldt, 1903-36, VII: 53).

19세기에 언어의 인지적 개념은 자명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언어의 전통적이며 정상적인 시각은 언어를 의사 소통의 장치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훔볼트는 언어를 사고를 생산하는 기관이라고 표명함으로써 언어의 인지적 혁명을 완수한 장본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훔볼트는 사고와 낱말의 상호 종속성에 기초하여 언어가 미리 설정된 진리를 표상하는 데 사용되기 보다는 차라리 그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진리를 발견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언어와 사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서 양자는 따로 분리되었으며 이같은 분리적 시각에서는 언어로부터 독립된 정신적 활동들이 존재하며, 언어는 사고를 지칭하거나 표상하는 것으로 족하다. 아울러 사고를 표상하면서 언어는 타자에게 사고의 내용을 투명하게 소통시킬 수 있다는 소박한 믿음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훔볼트에게서 언어는 독립된 그 무엇, 즉 비언어적

인 그 무엇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와 사고는 서로 쌍방향적으로 서로 종속된다. 아울러 그것은 하나의 생성적 과정이다. 따라서 언어는 사고의 창조이며 세계를 창조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진리의 발견 과정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언어를 사고 자체로서 제시하는 훔볼트의 두 번째 수순은 정신의 보편적 노동의 상대성을 진술하는 데 있다. 그에 따르면 사고는 언어 일반에 종속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별 언어에 어느 정도 종속된다.

여기서 어느 정도라는 것은 세계관의 상대성의 정도의 문제를 야기시키다는 점에서 미묘하다. 먼저, 사고가 개별 언어에 종속된다는 생각에 주목해 보자. 사고와 언어의 상호 종속성을 진술한 후에, 훔볼트는 상이한 언어들 사이의 차이들은 소리와 기호들의 차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계의 해석들의 차이들이며 여기서 언어의 탐구를 위한 이유이자 궁극적 목적이 발견된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언어는 일차적으로 인지적 과정이자 진리의 발견이거니와 발견의 과정은 개별 역사적 언어들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의 보편적 통일적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언어는 자신만의 진리를 발견한다. 이같은 진리들은 바로 그가 말하는 세계관(Weltansichten)이다. 언어의 인지적 기능과 그 기능의 역사적 또는 개별적 실현은 상이한 세계관을 창조한다. 다양한 언어들은 각 개별 민족에 고유한 사유 방식을 구성한다(Humboldt, 1903-1936, VII, 640-644).

아울러, 그 결론은 언어학의 토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같은 세계관의 연구가 바로 언어학의 궁극적 목적이다. 달리 말하면, 상이한 세계관의 발견은 참된 언어 연구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훔볼트의 사상에서 제기된 언어의 다양성과 세계관의 다양성은 얼마나 상대적인 것이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크게 6가지 양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Trabant 2000).

첫째, 보편성과 상대성의 변증법적 관계를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언어들은 상당한 공통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세계관의 특수성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 훔볼트는 각 개별 언어의 특수성을 진술한 후에 곧바로 모든 개별

언어들은 모두 사고의 형성(Gedankenbildung)이라는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사고의 형성은 모든 자연 언어가 지니는 공통 분모이다. 이같은 공통 임무에 기초하여 모든 언어에는 물론 공통적인 것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훔볼트는 개별 언어의 조건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견해, 즉 언어의 문법적 어휘적 부분에서 일정 수의 것들은 선형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피력한다. 그같은 언어들의 공통성은 생물학적 보편성에 기초한 사유 법칙의 보편성에 기인하거나와 여기에서 그는 보편 문법의 범주들을 첨가한다. 따라서 그는 철학 문법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연 언어들에 대한 편파적인 경험적 연구에 기초한 기존 문법들에 대해서 비판적일 뿐이다. 사고와 언어의 보편적 범주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그는 동사와 인칭 대명사는 보편적 범주들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언어의 다양성을 넘어서 철학적 문법이 존재한다.

두 번째 사항은 구조 개념과 관련된다. 훔볼트에게 개별 개념들과 문법적 특이성들은 언어 연구를 위한 영역이자 이유이다. 그것들의 총합은 각 언어의 세계관을 이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관의 연구가 단지 한 언어의 일정 영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자질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관은 한 언어의 총합에 의해서 구성되며 언어학자가 고려해야 할 것은 전체로서의 언어이다. 이같은 개별 세계관들을 파악하는 방식을 추구하면서, 그는 한 언어의 내부적 수미일관성, 곧 총체적 구조를 해명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언어학의 주된 임무는 한 언어의 어휘부와 문법의 수미일관된 제시로서 희랍어와 라틴어 등의 인구어의 문법 범주가 아닌 각 언어의 고유한 구조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즉, 이것은 언어의 구조적 기술로서 한 언어의 온전한 구조적 기술은 그것의 세계관의 기술이다. 이것은 구조 언어학의 발명으로 이어지는 참신한 생각이다(Miller 1968).

훔볼트의 언어 상대성 이론에서 개진된 세 번째 개념은 언어의 민족적 성격이다(Humboldt, 1903-36, IV, 420-435). 언어를 세계관으로서 연구하는 것은 언어의 어휘부와 문법의 구조적 기술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언어 연구를 문학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생생한 사용에 대한 연구로 확장할 것을 권고

한다. 문학적 관례와 사용은 그 언어의 세계관에 대한 통찰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촘스키가 이해한 홈볼트는 홈볼트 사상을 아전인수격으로 곡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언어의 본령은 개별 언어의 구조로 환원되지 않는다. 문법과 어휘는 과학적 분석의 죽은 인공물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은 언어의 죽은 해골이다. 개별 언어의 세계관은 오직 텍스트의 풍부한 생산에서 발전될 수 있을 뿐이다. 비록 주류 언어학의 실증주의적 과학적 신념은 문학 언어학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시하지만, 홈볼트의 연구 프로그램에서, 세계관은 문학의 발전에서 최상의 조건 속에서 연구될 수 있다.

네 번째, 언어적 다채로움과 상대성에 대한 홈볼트의 열광을 읽어내야 할 것이다. 홈볼트에게 있어서 언어적 다양성, 특이성, 개별성은 경탄의 대상이지 결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의 통일성에 대한 향수적 꿈을 꾸면서 서구 문화가 가정한 신의 응징이 아니다. 그는 언어적 다양성을 인간 정신의 작동들의 놀라운 다채로움으로, 즉 인지적 풍요로서 파악한다. 따라서 그는 촘스키의 도그마적 보편주의와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지구상의 언어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멋진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언어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다양성, 곧 사고의 상대성, 그것은 은총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홈볼트가 그의 최고의 상대주의적 시각에 도달한 것을 발견한다.

물론 인지적 풍요는 의사 소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즉, 그는 모든 민족, 모든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늘, 의사 소통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언어는 결코 개인 방언에 머무르지 않으며 공동체 속에 놓여 타자와 관계를 맺도록 해준다.

다섯 번째로 언급할 사항은 상대성과 완벽성의 관계로서 언어의 우열관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요컨대 이 양자의 관계를 논하면서 홈볼트의 세계관의 상대성에 대한 또 다른 한계가 윤곽을 드러낸다. 즉 문법 형성에 있어서 언어의 순위가 매겨진다. 그리스어와 산스크리트어가 최고의 위치에 놓인다. 그 이유는 문법적 형태의 창조에 있어서 최상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훔볼트의 상대주의는 언어적 균등주의나 무차별주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인간 정신의 멋진 다채로움을 지향하지만, 다채로움의 어떤 것들은 다른 다채로움 보다 더 우수한 것임을 실토했다. 이것은 그의 강한 보편주의적 확신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즉 보편적 척도를 가지고 그는 언어의 우열을 논한다는 점에서 그에게 유럽 중심주의의 혐의를 두는 것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한 메시지는 인간 종의 모든 언어들은 소중한 것이며 연구할 값어치가 있다는 점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사항은 언어가 사고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결정주의와 관련된다.

주지하다시피 상대주의라는 문제는 언제나 결정주의에 대한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세계관은 얼마나 결정주의적인 것인가? 언어는 얼마나 사고를 결정짓는가? 제언어의 상대성에 대해서 강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간주한다면, 개별 언어들은 상당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이다.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 세계관은 지극히 결정주의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결정주의적이지 않다는 답변도 가능하다.

언어는 다음 의미에서 결정주의적이다. 즉 그것은 훔볼트가 민족 정신(Volkgeist)이라고 부른 것을 결정짓는다. 왜냐하면 언어는 민족 정신 자체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사고의 생산이기 때문에, 언어들은 개별 민족의 사고의 특수한 산물들이다. 이렇게 볼 때 언어와 민족 정신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정주의는 터무니없는 것이 되고 만다. 반면, 결정주의 문제는 타당하다. 그는 흥미로운 대답을 한다. 민족 언어가 개인의 정신 활동을 규정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는 그렇다고 답한다.

민족 언어의 개별 유산은 유일무이한 것이며 특이한 것이다. 민족언어는 개인을 사로잡는 힘이며, 그가 복종해야 할 힘ियो, 우리를 압도하는 군대와 같다. 하지만 훔볼트는 개인을 우주의 살아 있는 중심, 자유로운 주체로서 간주한다. 자유로운 주체는 결코 언어의 파시즘에 굴복하지 않고 싸움을 한다. 주체는 법에 맞서서 자유를 대립시킨다. 개인의 발화는 그같은 집단적 힘에 맞선 개인의 항거의 영원한 변증법이다. 바로 이같은 싸움이야말로 훔볼트 언

어 개념의 중심인 것이다. 언어는 개인의 창조적 활동으로서 그 활동을 통하여 주체는 문법과 어휘부의 제약을 극복한다.

4. 언어상대주의의 인식론적 구조

현대 언어학과 인류학에서 언어 상대성의 원칙은 보아스의 언어 인류학 전통을 계승한 사피어와 워프의 비교 문화 인식론을 지칭하기 위해서 제안된 용어로서 빈번하게 하나의 가설로 취해진다. 즉 모든 수준에서 언어적 ‘패턴’은 무제약의 변이를 노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언어는 전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Mathiot 1979).

하지만 보아스-사피어-워프의 전통에서 제안된 언어 상대성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가설이 아니라, 공리, 즉 언어 인류학의 시초에서 제시된 인식론과 방법론의 부분이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Hill and Mannheim 1992). 세 사람은 오늘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극단적 의미에서의 상대론자가 아니다. 언어적 문화적 특수 사항은 보편자들과 상호 교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제한적 입장을 가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세 사람은 모두 인간들에게 일반적인 인지 조직화의 종류가 언어 능력의 기저에 있다고 인정했으며 언어 이전에 존재하는 개념적 조직화의 영역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사피어는 문화를 역사적으로 파생된 패턴들의 공유된 ‘계슈탈트’라고 보았다(Sapir 1949, 11; Friedrich 1979; Darnell 1990). 사피어는 개인들이 그같은 패턴들을 체득하고 형상화하는 메커니즘을 탐구했으며 워프는 언어 이전의 성층이 언어적 문화적 경험을 조직화하였음을 시사했다. 언어와 세계관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언어 현상의 상당 부분은 인간의 심리와 생물학의 보편적 양상을 공유한다는 발견과 더불어 언어 상대성의 공식을 문제시 삼는다. 하지만 제안된 보편소의 위상을 평가하는 정교함은 워프에게 신세지고 있다. 그는 실제로 과학 언어의 문화적 뿌리를 세심하게 의식하고 있었다(Whorf 1956). 그같은 보편소들의 개연성을 받아들 이면서, 대부분의 언어 인류학자들은 가설적 보편소가 파악된 언어 연구의 인

식론적 방법론적 토대들은 반성적 탐사를 통하여 검증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같은 토대들은 서구의 언어적 이데올로기의 인공물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모종의 보편주의와, 그와 결부된 생물학적 선천성이라는 생각이 본질론적 존재론의 산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그같은 존재론은 유럽어에서 지시적 객체화의 실천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베커는 비유럽어에 대한 서구 학자의 주석을 은유의 집합이 아니라 순수 의미에 대한 접근의 형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어의 도취와 흥분(exuberance), 즉 논리적 범주들을 사물 자체로서 사유하는 환상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비서구어 및 인디어 언어들을 알파벳으로 옮기는 전사 행위는 서구인의 언어적 게임을 타 언어의 화자들의 삶의 형식들에 정치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베커는 주장한다(Becker 1984).

홀볼트와 아인슈타인의 영향을 받아 언어와 문화와 관련하여 언어상대성을 가장 철저히 제시한 장본인은 워프이다(Alford 1981). 워프 테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온전하게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Lucy 1992a, b). 워프는 매우 모호하고 중의적으로 스스로를 표현한다. 그는 때로는 특정 경우를 소개하고, 또 도전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증진시키며, 과학적 증명의 표준에서 벗어난다. 슈츠(Schultz 1990)는 워프의 저작을 단일한 관점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위험하며, 실증과학과 문학적 해석이 워프의 저작에서 심오한 긴장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슈츠는 바흐친의 다성적 해석을 활용하여 워프의 저작을 다성적인 것, 즉 실증주의적 과학과 시적 해석의 목소리들 사이의 다성적 목소리로서 보려 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몇 가지 결정적인 물음에 대해서 워프의 이론과 가설을 안착시키기가 힘들어진다. 여기서는 가능한 한 언어 상대주의 테제의 가능한 의미를 식별하도록 해보자. 앞선 장이 역사적이었다면, 본 장은 체계적이다. 그는 언어의 개인에 대한 영향, 아울러 문화 전체에 대한 영향을 구별짓는다. 아울러 그는 한 언어의 어휘의 영향과, 그것의 문법적 시스템의 영향을 구별했으며 워프는 두 번째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점에서 홀볼트와 가깝다.

먼저 워프의 언어상대성 이론의 요지를 파악해 보자(Whorf, 1956: 207-33).

첫째, 인식론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진술을 읽어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에 의해서 그려진 선을 따라서 자연을 해부한다. 우리가 현상 세계로부터 고립화하는 범주들과 유형들은 실상은 자연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마주보는 반대편에서 있는 관찰자들은 그것들을 다르게 응시하기 때문이다. 정반대로, 세계는 우리의 정신에 의해서 조직화되어야 하는 인상들의 만화경적 플릭스에서 제시된다. 아울러 이것은 우리 정신의 언어적 체계들에 의해서 조직화됨을 의미한다”(213)

둘째, 상징적 표현의 패턴과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패턴-상징적 표현들은 수학처럼 정밀하지만 수량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수학처럼 궁극적으로 수와 차원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과 구조를 지시한다”(226)

“양과 수는 패턴의 현실에서 맡는 역할이 별로 없다. 패턴에서는 변수가 거의 없으며, 그 대신 하나의 구상화에서 다른 구상화어로 돌발적인 교체가 있을 뿐이다. 수리과학은 정확한 측정을 요구하는 반면, 언어학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 정확한 패턴화이다”(230-31)

워프의 언어상대성 이론의 세 번째 주제는 무의식적 사고이다.

“언어 현상은 그 자신의 화자들에게 배경의 특징이며, 비판적 의식과 화자의 통제 외부에 있다”(1956: 211)

이같은 무의식적 영향은 사피어에 의해서도 선명하게 피력된다(Allen 1986).

“언어의 사용 없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아울러 언어가 의사 소통 또는 반성의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차적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문제의 사실은 ‘실재 세계’는 상당 부분 무리의 언어 타성에 기초하여 무의식적으로 건설된다는 것이다. 두 개의 언어들

은 동일한 현실을 표상한다고 간주될 정도로 충분히 유사하지 않다. 상이한 사회들이 살아가는 세계들은 상이한 세계들이며, 단지 상이하게 결부된 레벨들과 더불어 동일한 세계가 아니다”(Sapir 1949, 162)

끝으로 워프는 언어 상대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언어 현상은 배경 현상이다. 화자들은 그 현상을 의식하지 못한다. 기껏해야 희미하게 감지할 뿐이다. 이같은 언어의 원자적, 무의도적 패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 않으며 각각의 언어에 특수하다. 아울러 언어의 형식화된 측면, 또는 그것의 문법을 이룬다 (...) 이같은 사실로부터 내가 “언어 상대성 원칙”이라고 부른 것이 진행된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비형식적 용어로, 현저하게 상이한 문법의 사용자들은 상이한 관찰 유형과, 관찰의 외재적으로 유사한 행위의 상이한 평가를 향한 그들의 문법에 의해서 지시된다. 하지만 그들은 상당히 다른 세계관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1956, 221)

사피어-워프의 언어상대성 원칙의 핵심 내용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언어, 사유, 문화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인식론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언어적 차이를 지적할 수 있으며 언어 상대성 가설은 언어적 차이의 가정에 근거한다. 즉 언어들은 그것들의 의미 구조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 어휘적 범주들과, 형태 통사론적 범주들의 내포와 외연들은 언어들 마다 상이하다.

둘째, 언어와 사유의 인과율적 연계성, 즉 언어 결정주의를 지적해야 할 수 있다.

“(…) 한 사람의 사고의 형식들은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패턴의 곱힐 줄 모르는 법칙들에 의해서 통제된다. 이같은 패턴들은 그 자신의 언어의 지각되지 않은 복잡한 체계화이다. (...) 모든 언어는 방대한 패턴-시스템으로서, 다른 언어와는 상이하며 각각의 형식과 범주들을 통하여 개인은 소통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분석하고, 특정 관계와 현상들의 유형을 주목하거나 무시하며, 그의 이성을 채널화하고, 그의 의식의 집을 짓는다”(1956, 252)

언어 결정주의라는 표현은 언어적 패턴화가 인지 작용에 미치는 인과율적 영향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지시한다. 언어적 조건짓기, 언어적 입법화, 굶힐 줄 모르는 통제 등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워프 자신의 입장은 사고의 잠재력에 제한을 가하는 대신 언어가 무의식적인 타성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언어 결정주의라는 생각은 최소한 언어적 범주로부터 비언어적 범주에로의 인과율적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방향으로 배타적인 인과율적 백터를 외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언어 결정주의는 언어가 인지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현실은 그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파악될 수 없으며 현실의 지각은 언어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사유가 언어적 매체를 통하여 진행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언어의 손아귀에 놓인다. 언어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한계들을 초월할 수 없다. 영어의 화자는 오직 영어에서 전달되는 것만을 이해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한국어는 다르게 현실을 축조한다. 따라서 영어 화자에게 그같은 현실 축조 방식은 이해되지 못한다. 상이한 언어들 사이의 화자들은 상이한 정신적 세계에서 살아간다. 쌍방적 이해를 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언어와 세계관은 상이한 언어들 사이에서 쌍방적으로 번역될 수 없다. 이같은 견해는 철저한 언어 결정주의라고 불려진다. 우리가 앞에서 부른 언어 결정주의는 약한 결정주의이다.

워프 자신은 급진적 결정주의와 약한 결정주의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다. 워프의 입장은 다양한 곳에서 철저한 결정주의 브랜드다. 그는 ‘언어의 깨지지 않는 유대, 언어의 부동의 법칙을 말한다.

“우리는 자연을 재단하고, 그것을 개념으로 조직화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자연을 조직화하는 일치에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 그 일치는 전체 언어 공동체를 통하여 유지되며, 우리 언어의 패턴 속에서 코드화된다. 그 일치는 물론 암묵적이며, 진술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의 약정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강제적인 것이다”(1956, 213-214)

이같은 극단적 입장이 발생시킬 어려움과 논리적 비수미일관을 워프 자신

이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악한 결정주의를 피력한다. 언어에 사유 방식에 대한 패턴화된 저항을 할당시킨다. 아울러 사유가 전적으로 언어적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철저한 결정주의의 옹호자로 알려졌고, 그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셋째, 언어와 인지 사이의 평행성 또는 언어와 문화 사이의 평행성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언어적 패턴과, 인지적 패턴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적 패턴과 문화적 패턴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성이 존재한다. 각각의 언어는 그 발화 공동체의 문화를 반영한다. 이같은 주장을 간단히 평행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앞선 두 개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서로 독립된다. 즉 언어적 결정주의 없이도 평행주의는 가능하다. 언어와 문화 사이의 상응성, 즉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문화와 언어 모두 제 3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행주의 없이도 언어 결정주의는 가능하다. 예컨대, 전 세계에 영어만 남고 나머지 언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래도 여전히 그 언어의 구조가 개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전체 문화에 대한 영향, 더나가 평행주의 테제는 언어들 사이의 차이, 즉 현실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다만 언어적 차이와 언어결정주의는 상호독립적이다. 언어적 차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언어 결정주의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워프 자신은 언어적 결정주의와 평행주의를 하나로 꿰는 것을 옹호한다. 즉, 그는 언어적으로 결정된 사고 세계를 논하며(1956, 154) 아울러 유럽어와 인디언 언어가 그들 화자의 정신성에 미치는 차이적 효과들을 언급한다. 또는 다른 곳에서는 정신에 있어서의 평행성, 즉, 언어와 문화 사이의 연계성에 대해서 논한다. 워프는 영향의 두 가지 방향의 존재, 즉 문화에서 언어로 또 언어에서 문화에로의 영향 모두를 인정한다. 다만, 그는 문법은 문화에 비해서 변화에 더 저항적이기 때문에, 언어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우세

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언어상대성 원리의 네 번째 하위 테제로서 언어와 문화의 상호융합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언어와 문화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양자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삼투한다.

요컨대 어떤 행동 양식들을 언어적인 것이고 다른 것은 문화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선형적인 기준은 없다. 음성학의 가장 형식적이며 세밀한 양상도 행동의 가장 철저하게 비언어적인, 무의식적 부분을 관류한다는 사실이 음절 조어 타이밍과 신체 동작과 몸짓 타이밍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Key 1980).

언어와 문화는 구조나 실천 따위 같은 개념으로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분리되지 않는다. 더나가, 의미는 오직 사회적 행동과 발화를 통하여 다른 언어에서 알려질 수 있을 뿐이다. 아울러 이것들을 다른 문화들로 분석하기 위한 변별적 단위들은 언어를 통하여 작업될 수 있을 뿐이다. 아울러 최종 보고서는 인종학자의 모국어로 산출된다. 따라서 언어, 문화, 의미는 인종학을 실천하면서 어쩔 도리 없이 서로 전염된다.

언어상대성 원리의 다섯 번째 함의는 언어적 다양성에 기초한 인지적 다원주의에 있을 것이다(Fishman 1982). 이점을 레이코프는(1987) 소멸되어가는 언어들을 보호해야 할 이유로서 지적하고 있다.

“광범위한 조건의 다채로움 아래서 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종의 유전자 ‘풀’이 생존해야 하는 것처럼, 경험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들은 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나는 믿는다. 나는 소멸되기는 문화와 언어들은 소멸하는 종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호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위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계에서 진화해온 다양한 경험의 개념화 방식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Lakoff 1987, 337)

레이코프는 언어적 다양성의 쟁점을 인지적 다원주의와 연계시키고 있다. 아울러 그는 상이한 언어들이 화자들이 경험을 주목하고, 조합하고, 표상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이한 방식을 제공한다는 위프의 견해를 지지한다.

위에서 지적한 5가지 사항을 통하여 위프의 상대성 원리의 도출 경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① 상이한 언어들은 정보적으로 등가가 아닌 상이한 의미론적 표상 시스템을 사용한다.
- ② 의미론적 표상들은 개념적 표상의 양상들을 결정짓는다.
- ③ 상이한 언어들의 사용자는 상이한 개념적 표상을 사용한다.

이같은 삼단논법을 통하여 그는 다음 결론에 도달한다.

하나, 언어는 일정한 인지적 선경향을 만들어 낸다. 즉, 언어적 패턴들이 불가피하게 감각적 지각과 사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문화적 패턴들과 더불어, 지각과 사유를 특정의 습관적 채널로 유도한다.

둘, 언어는 현실의 일정 양상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궁극적으로, 인간 사고에 있어서 언어 일반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언어 상대성에 대한 연구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이룬다. 그같은 연구는 기호학적 시각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야 한다. 즉 자연 언어의 성질을 다른 기호학적 형식들과 대조하여 그 차이, 점점, 공통성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기호학적 시각에서, 자연 언어의 변별적 자질은 그것의 고차원적 상징성과 다른 기호 체계들을 해석하는 해석체계라는 데 있다.

5. 보편적 상대주의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언어상대성의 전통을 보편주의와 화해시키려는 연구자들 가운데 우리가 특히 주목할 사람은 폴란드 출신의 언어학자 비에르즈비카 여사의 일련의 연구물이다(Wierzbicka, 1988, 1992, 1999). 그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축적한 어휘적 실험을 통하여 기본적인 보편적 인간 개념의 저장소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그녀는 초기 연구에서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개념들(semantic primitives)의 숫자를 다음과 같은

14개 정도로 보았으며 나중에 가서는 그 숫자마저 축소하고 있다(Wierzbicka 1972). I, you, someone, something, this, want, don't want, think, imagine, feel, part, world, say, and become(현재의 가설은 14개 가운데 10개를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I, you, something, this, say, want, don't want, feel, and think, where, good. 특히, know, where, good 은 강력한 것으로 본다).

그 후로 라이프니츠의 가설에 기초한 의미론 연구를 비인도유럽어 계통으로 확장하면서 더 광범위한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이같은 팽창과 더불어 그녀는 '인간 사고의 알파벳'에 대한 추구는 명시적으로 어휘적 보편소, 즉 세계의 모든 언어들에서 어휘화된 개념들의 탐구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요컨대, 모든 언어의 어휘부의 대부분은 상당한 정도에 있어서 각각의 언어에 특수한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어휘적 변이가 상이한 언어 공동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들을 반영한다는 기본적 통찰에 이른다.

그녀는 언어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대부분의 개념은 복합적이며 따라서 분해 가능하며, 문화 특수적이며 다른 것들은 간단하며 즉 분해가 가능하지 않으며, 보편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영어의 다음 단어들은 두 번째 범주에 속한다. feel, want, know, think, say, do, happen, if. 따라서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것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보편적 개념들, 느끼다, 원하다, 알다, 생각하다, 말하다, 하다, 일어나다, 만약 등은 지적 이해의 기저층을 이루는 보편적 개념들로서 해석학적 순환을 회피하도록 도와주는 초석들이다.

언어적 범주화의 차이와 상대성과 관련하여 감정어휘의 상이한 범주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최근까지도 많은 학자들은 감동의 범주화들이 언어마다 다르다는 것을 믿기 거부했으며, 최소한, 몇 가지 감정들은 모든 언어에서 언어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렇지만, 언어 현실을 연구해 보면 그같은 보편적 가설이 허구임이 드러난다. 이같은 다양성에 대해서 더 많은 사실들이 알려졌지만, 원칙적으로 감정어들이 언어마다 일치하지 않는다

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왔다. 심지어, 수십 년 전부터 기본 감정들인 happiness, sadness, anger, fear, disgust and surprise 등이 모든 문화권에서 인지된다고 주장한 극단적 보편주의자인 에크만조차도 뉴기니아의 다니 족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연구했지만, 6가지 기본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가 없음을 시인했다(Ekman, 1980, 1989).

상이한 언어들의 감정 어휘부(emotion lexicons)들은 유사성과 동시에 차이들을 보여준다. 하지만 감정의 범주화와 개념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비에르지빅카 교수의 주장의 요체는 모든 언어들이 영어의 sadness, anger, fear, happiness, disgust, and surprise 등을 기본적이며 자연적인 보편적인 것으로 공유한다는 선입관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휘적 다양성의 기본적 사실이 일단 인정되면, 감정 연구에서 인종중심주의에 맞선 싸움은 승리했던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이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는데도, 많은 학자들은 그 중요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어휘적 다양성 배후에 또는 그 넘어서, 문화들을 관류하는 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단언한다. 주로, 심리학자들의 입장이 여기에 속한다.

에크만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공포, 두려움, 역겨움, 슬픔, 기쁨 표현의 해석에 대해서 문화마다 불일치를 증언하는 강력한 증거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비에르지빅카 교수는 만약 fear, anger, enjoyment 등이 애초부터 당연한 것으로 취해지고 연구 프로젝트 자체 안에 건설되었다면 어떻게 그같은 증거를 획득할 수 있냐고 반문한다.

그녀는 폴란드어 모국어 화자로서, 에크만이 웃는 얼굴을 enjoyment 차원에서 해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폴란드어 어휘부에는 그같은 범주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는 웃는 얼굴이 보편적, 문화로부터 독립한 메시지를 수반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같은 메시지는 오직 보편적 문화로부터 독립한 개념들 차원에서만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녀는 이같은 메시지의 핵심으로서, I feel something good now 라는 공식으로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제임슨이 주목했듯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양한 감정들을 갖을 수 있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이같은 상이한 감정들은 다른 감정과 선명하게 분리되지 않으며 정확하게 설정될 수도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제임슨은 이같은 방대한 느낌의 성운의 세계에 기초하여 모든 언어는 자신의 해석적 격자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들의 각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려 한다면 그 수에 대한 제한은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내성적 어휘에 달려 있으며, 특정 문화권의 사람들이 차별화하지 않은 채 남겨 놓은 감정의 그늘에 대해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름을 찾아내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해석하는 방식은 최소한 일정 정도에 있어서 그들의 모국어가 제공하는 어휘적 격자에 종속된다.

요컨대, 두 개의 상이한 동물로 구별되는 것이 다른 언어에서는 하나의 동물로 범주화되는 동일한 상황이 감정에 적용된다. 두 개의 감정들이 두 개의 상이한 예들로서 해석되느냐, 아니면 동일한 감정으로 해석되느냐는 느낌들이 해석되는 프리즘을 통하여 언어에 종속되며 아울러 그같은 프리즘은 문화에 달려 있다.

따라서 영어 단어 *sad*에 해당되는 단어를 갖지 않는 하이티 사람들조차도 (Levy 1973) *sadness*라는 생득적 보편적 범주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종 중심적 발상이다.

그런데 에크만은 타이티 사람들은 *sadness*를 나타내는 단어도 없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야기되는 일련의 슬픈 행동 양식을 인지하지 않는다는 레비의 보고서를 단번에 무시한다. 그리고는 그는 슬픔의 전달과 슬픔의 반응의 관계가 이 문화에서 부재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논리적 비약을 감행한다. 즉, 에크만은 타이티 사람들의 자신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 외부인이 제시하는 그들의 경험에 대한 해석만큼 타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그는 타이티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은 영어의 *sadness*라고 믿는다.

물론, 타이티 사람들이 슬프다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영어 화자가 한국 사람들의 한의 감정을 못 느낀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영어의 *sadness*가 한국의 한이라는 감정에 비해서 더 중요하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sadness*나 *anger*는 영어 화자들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언어가 제공하는 개념적 격차는 상이하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른 연구 영역에서처럼, 감정 어휘의 연구는 연구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만약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노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바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anger*의 의미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일부 문화 인류학자들이 지적했듯이 *anger*는 원색적 날 것의 감정적 경험에 대해서 영어 화자들에 의해서 부과된 해석적 스키마일 뿐이다(Shweder and Robert A. LeVine, 1984). 유사한 경험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는 수 없이 많은 해석적 스키마들이 존재한다. 아울러 영어 단어 *anger*와 결부된 해석적 스키마가 언어로부터 독립된 심리적 현실에 도달하기 위한 특권화된 접근을 제공한다고 간주되면 곤란하다.

하지만, 반드시 보편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양한 문화들을 따라서 작동되는 감정 범주들의 무한한 다채로움이 존재한다는 것이 감정 조직화의 보편적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과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이렇다.

만약 보편적 패턴들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anger*, *sadness*, *disgust* 등과 같은 영어권 민족의 범주들에 의해서 포착될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보편적인 인간 개념들 차원에서 포착될 수 있다.

그런데도 많은 심리학자들은 자신이 현상을 포착하는 기술 언어의 비투명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들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감정표현들이 일정한 개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프의 가설들이 주장하듯,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드는 삶의 조건을 제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감정들은 단어 없이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며 단어는 중요하지만 그것을 신성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언어들 사이에서의 차이들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정확히 자신들이 피하려고 했던 바를 자초한다. 즉 그들의 모국어에서 몇 개의 단어들을 신성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단어 속에 갖혀 있는 개념들을 구체화한다.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 단어는 다른 민족의 개념화에 단서를 제공한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의 감정 세계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낱말들이다. 둘, 단어를 연구함으로써 단어를 넘어서 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감정에 관심을 갖되, 단어에는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영어 단어 *sadness*, *enjoyment*, *anger* 등이 하나의 개별 언어의 문화적 인공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피어는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철학자는 스스로를 자신의 언어 타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원한다면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Sapir, 1949, 165)

감정에 대한 연구 문헌은 생물학과 문화를 마치 두 개가 쌍방적으로 배타적인 것으로 대조시킨다. 심리학자 제임슨은 감정들은 생물학적 생리적 사건들의 주관적 경험을 표상하지만, 그는 감정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아울러 그같은 감정들은 상이한 문화에서 상이하게 범주화된다는 점을 간파했다.

따라서 영어 *anger*는 다른 언어에서 등가적 표현을 찾아낼 수 없다. 한국어의 마음, 정, 한, 등의 표현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없다.

‘분노’ 같은 기본적 소박한 개념도 사실은 일정한 문화적 모델과 연계된 것이며 문화로부터 독립된 분석적 도구로 볼 수 없으며, 인간의 감정을 기술하기 위한 보편적 표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비에르즈빅카 여사의 확신이다.

모든 언어에서의 대부분의 단어들은 이같은 개별 언어에 특수한 것이거나 언어들 무리에 특수한 것이며 보편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영어도, 스페인어도, 말레이어도 독일어 *Angst*에 해당되는 의미에 해당되는 의미를 갖는 단어를 갖지 못한다. 반면, 모든 언어들은 영어 단어 *good*이나 *bad*의 의미에 해당

되는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 갖는다는 점을 암시하는 증거는 존재한다. 좋다, 나쁘다는 보편적이며, 문화로부터 독립된 의미론적 메타 언어의 요소들이다.

이점에서 비에르치비카 여사가 독일어 angst에 대해서 수행한 연구는 시사적이다(Wierzbicka 1999, 제 3장). 두려움과 초조감을 나타낼 때 쓰는 독일어 단어 Angst와 Furcht에서 코퍼스 언어학의 연구에 의하면 50만 단어 가운데서 앞에 것은 52번, 두 번째 것은 고작 4번 정도 나왔다.

두 단어의 주된 의미론적 차이는 의심할 나위 없이 Angst의 비결정성 즉, I have Angst에서 앙스트의 이유가 규정되지 않은 채로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특별한 위험보다는 인간의 조건과 연관된 정서 상태를 나타낸다. 즉, 실재적인 위험보다는, 앞으로 생길 일을 모르고, 다루어야 할 문제를 명확히 알지 못할 때, 알려지지 않은 것, 위협의 편재성, 불가피성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이다.

그녀가 제안한 보편적 의미 원초소(universal semantic primitives)의 메타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I don't know what will happen.
Bad things can always happen to me.

그녀는 일상 독일어에서 사용되는 '앙스트'의 의미에 대하여 11가지를 추려 내고 있는데 특히 다음 5가지 사항을 핵심적으로 보고 있다.

- ① Angst는 원형적인 시나리오에 의해서만 정의될 뿐이며, 어떤 생각도 경험하는 사람에게 할당되지 않는다.
- ② 위협의 비결정성, 일반적 의미.
- ③ Angst의 설명에서 당분간이라는 하위 구성 요소는 지속적 상을 설명한다. 상태 또는 과정의 성격을 띤다.
- ④ 불확실성
- ⑤ 감정은 기저 사고에 비해서 더 오랜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두려움은 근본적인 인간의 정서로 가정된다. 그 정서는 문화가 아니라 인간 생물학에 의해서 규정되는 정서이다. 하지만 독일의 지적 문화적 전통에서 아울러 독일의 민간 심리에서 일차적인 근간적인 감정으로 널리 간주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독일인들이 Angst라고 부르는 그 무엇이다. 그 단어에 대해서 대부분의 독일어 단어들은 등가어를 갖지 못한다. 저자는 독일 심리학, 철학, 신학에서 발견되는 앙스트 개념이 일상 언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입증하며, 실제로 독일의 보통 화자들이 일상적 기초에서 작동시키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그녀는 앙스트의 특이한 독일적 개념의 기원을 루터의 정신적, 문화적, 지적 아성에서 그 흔적을 파헤친다.

인지적 시나리오는 인간 생물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 형성됨을 보여준다. 문화는 다시, 역사, 종교, 삶의 방식에 의해서 형성된다.

모든 언어가 어휘화된 개념들의 고유한 집합을 제공한다면, 아울러 자신의 고유한 범주화와 세계에 대한 고유한 해석을 제공한다면, 사피어가 지적했듯이, 모든 언어는 현실에 대한 상이한 안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언어 학자들이 워프의 상대성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정반대의 상황, 즉 의미적 보편성에 대한 증거를 그들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최근까지도 상이한 언어들의 어휘부에 농축된 개념적 체계들에 대한 엄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휘적 보편소에 기초한 자연 의미론적 메타 언어의 사용 가능성은 그같은 엄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같은 비교에 착수한다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것이다.

상이한 언어들의 어휘부는 상이한 개념적 우주를 암시한다. 아울러 하나의 언어에서 말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른 언어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비록 그 수가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모든 언어는 기본적인 인간 개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갖는다고 믿을 여지가 있다. 아울러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올바르게 기본적 개념들을 조합하면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언어에서 말해질 수 있는 단어는 의미의 변화 없이 다른 언어들로 번역될 수 있다. 한국어의 한과 정은 기본 개념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으며 그같은 정의들은 메타 언어의 도움을 빌려서 영어,

일본어, 영어, 불어 따위로 옮겨질 수 있다. 각각의 버전은 자연적 의미 메타 언어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국어 화자들에게 판독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각각의 버전은 그 모든 풍요로움과 특이성 속에서 이루어진 자연 언어보다는 표준화된 비숙어적 메타 언어를 재현한다. 자연 언어와, 자연 언어로부터 파생된 자연 의미론적 메타 언어 사이의 이같은 차이는 정확한 번역 기능성의 한계를 결정짓는다.

6. 결론

언어, 사유, 문화, 이 세 개의 요소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 이론, 논의 등은 서구 언어 사상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논의는 이 세 개의 요소 사이의 관련성을 놓고 축적된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 ① 이 세 개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언어 상대성과 언어 보편성의 이원론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다양한 변이형들로 이루어진 스펙트럼 내지는 ‘아치’ 모양을 형성한다.
- ② 언어상대성과 언어 보편성의 주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다양한 입장들이 연대기적으로 순환하면서 나타나되, 양극단론과 중간론 사이를 왕복 운동하는 추의 운동으로 묘사될 수 있다.
- ③ 언어 상대성과 언어 보편성 논의는 언어 이외의 이데올로기적 해석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평가를 어렵게 만든다(Rossi-Landi 1973).
- ④ 언어 상대성과 언어 보편성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사변적 철학적 함의로 향하며, 경험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 ⑤ 언어 상대성은 너무나 많은 오해의 대상이었다. 이것은 3번과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보편 문법을 주장하는 생성 언어학과 인지과학자들은 자신들의 가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프의 상대성 이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졸렬함을 보이기 일쑤이다.

인용문헌

- Aarsleff, H. From Locke to Saussure. *Essay in the study of language and intellectual histo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 _____. "Introduction to W. von Humboldt." *On language: The diversity of human language structure and its influence on the mental development of mankind*. Transl. by P. Hea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ford, D. K. H. "Demise of the Whorf hypothesis." *Proc. Berkeley Linguist. Soc.* 4, 1978. 485-99.
- _____. "Demise of the Whorf hypothesis." *Phoenix* 4, 1980. 85-91.
- _____. "Is Whorf's relativity Einstein's relativity?." *Proc. Berkeley Linguist. Soc.* 7, 1981. 13-26.
- Allan K. *Natural language semantics*. Oxford: Blackwell, 2001.
- Allen, R. J. "The Theme of the unconscious in Sapir's thought." *New Perspectives in Language, Culture, and Personality: Proceedings of the Edward Sapir Centenary Conference*, ed. Cowan, W., Foster, M. K., Koerner, K., pp.455-77. Amsterdam: Benjamins. 1986.
- Barnard, F. M. J. G. *Herder on social and political cultur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 Becker, A. L. "Biography of a sentence: a Burmese proverb." *Text, Play, and Story, the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Self and Society*, ed. E. Bruner, pp.136-55. Washington: AES. 1984.
- Benveniste, E. "Catégories de pensée et catégories de langue." *Études philosophiques* 4, 1958. 419-29. Transl. "Categories of thought and language." *Problems in General Linguistics*, pp.55-64. Coral Gables: Univ. Miami Press. 1971.
- Berlin, B., Kay, P. *Basic Color Terms: Their Universality and Evolution*. Berkely: Univ. Calif. Press. 1969.
- Brown, R. L. *Wilhelm von Humboldt's conception of linguistic relativity*. The Hague: Mouton, 1967.
- Chatterjee, R. "Reading Whorf through Wittgenstein." *Lingua* 67, 1985. 37-63.
- Condillac, E. B. de, *Essai sur l'origine des connoissances humaines*. 1746. In *Oeuvres philosophiques, texte*. Ed. et pres. par G. Le Roy, Paris, PUF., 1947-51, vol. I.
- Darnell, R. *Edward Sapir: Linguist, Anthropologist, Humanist*. Berkeley: Univ. Calif.

- Press. 1990.
- Deleuze, G. *La logique du sens*, Paris: Seuil, 1969.
- Eco, U.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6.
- _____.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4.
- Ekman, Paul, *The face of man: expressions of universal emotions in a New Guinea village*. New York: Garland STMP Press, 1980.
- _____. "The argument and evidence about universals in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In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eds. Wagner, H and A. Manstead. New York: John Wiley, 1989. 143-64.
- Fishman, J. A. "The Whorfian hypothesis: varieties of valuation, confirmation, and disconfirmation," *Int. J. Soc. Lang.* 26, 1980. 25-40.
- _____. "Whorfianism of the third kind: ethnolinguistic diversity as a worldwide societal asset," *Lang. Soc.* 11, 1982. 1-14.
- Friedrich, P. "Poetic language and the imagination: a reformulation of the Sapir hypothesis," *Language, Context and the Imagination*. pp.441-512.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79.
- Gipper, H. "Is there a linguistic relativity principle?," *Indiana* 5, 1979. 1-14.
- Grace, G. W. *The Linguistic Construction of Reality*. London: Croom Helm, 1987.
- Gumperz, J., Levinson, S. "Rethinking linguistic relativity," *Curr. Anthropol.* 32, 1991. 613-23.
- Gumperz, John. J and Levinson, S.C(eds.) *Rethinking linguistic rela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Herder, *Sammtliche Werke*, ed. B. Suphan, Berlin, 1877, volume 2.
- Hill, J. H. "Language and world view," *Linguistics: The Cambridge Survey*, ed. F. J. Newmeyer, 4, 1988. 14-36.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Hill, J. H and Mannheim, B. "Language and World View",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1, 1992. 381-406.
- Humboldt, W, von. *Über die Verschie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und ihren Einfluss auf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Menschengeschlechts*. Berlin: Königlichem Akademie de Wissenschaften. 1836. Transl. On Language: *The diversity of Human Language-Structure and its Influence on the Mental Development of Mankind*, transl. P. Heath.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8.

- Kay, P., McDaniel, C. K. "The linguistic significance of the meanings of basic color terms," *Language* 54, 1978. 610-46.
- Key, M. R., ed. *The Relationship of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The Hague: Mouton, 1980.
- Lakoff, G. "The invariance hypothesis," *Cogn. Linguist.* 1, 1990. 39-74.
- _____.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Lee, B. "Peirce, Frege, Saussure, and Whorf: the semiotic mediation of ontology," *Semiotic Mediation: Sociocultur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eds., Mertz, E. Parmentier, R. J., pp.99-128. Orlando: Academic, 1985.
- Levy, Robert. *Tahitians: mind and experience in the Society Island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73.
- Locke, J.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Oxford: Clarendon, 1894/1960.
- Lucy, J. A. *Language Diversity and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2a.
- _____. *Grammatical Categories and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2b.
- Putz, M. and Verspoor, M(eds.). *Explorations in Linguistic Relativit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2000.
- Mathiot, M. ed., *Ethnolinguistics: Boas, Sapir, and Whorf Revisited*. The Hague: Mouton, 1979.
- Mertz, E., Parmentier, R. J., eds. *Semiotic Mediation: Sociocultur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rlando: Academic, 1985.
- Miller, R. Miller, *The linguistic relativity principle and Humboldtian ethnolinguistics*, Mouton, The Hague, Paris, 1968.
- Nietzsche F. *Beyond good and evil: Prelude to a philosophy of the future*. (Transl.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1966/1886.
- Rossi-Landi, F. *Ideologies of Linguistic Relativity*. The Hague: Mouton, 1973.
- Sapir, E.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1921.
- _____. *Selected Writings of Edward Sapir*, ed. D. Mandelbaum. Berkeley: Univ. Calif. Press, 1949.
- Saussure, F. d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1915. Transl.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transl. W. Baskin. New York: McGraw-Hill, 1959.

- Schlesinger, I. M. "The wax and wane of Whorfian views". In *The Influence of Language on Culture and Thought*, ed. Robert L. Cooper, Bernard Spolsky, Mouton de Gruyter, Berlin. New York, 1991. 7-44.
- Schultz, E. A. *Dialogue at the Margins: Whorf, Bakhtin, and Linguistic Relativity*. Madison: Univ. Wisconsin Press, 1990.
- Shweder, Richard and Robert A LeVine(eds.).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Travant, Jurgen. *Humboldt ou le sens du langage*. Liege, Mardaga, 1992.
- _____. *Traditions de Humboldt*. Paris, Editions de la MSH, 1999.
- _____. "How relativistic are Humboldt's Weltansichten?." In *Explorations in Linguistic Relativity*, ed. Martin Putz and Marjolijn H. Verspoor,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2000. 25-44.
- Vygotsky, L. S.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1966.
- Whorf, B. L.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Selected Writing of Benjamins Lee Whorf*, ed. J. B. Carroll, Cambridge, MA: MIT Press, 1956.
- Whitney, W. D. *The life and growth of language: An outline of linguistic science*. New York: Appleton, 1875.
- Wierzbicka, A. *Semantic primitives*. Frankfurt: Athenaum, 1972.
- _____. *The Semantics of Grammar*, Amsterdam: Benjamins, 1988.
- _____. *Semantics, culture, and cognition. Universal Human Concepts in Culture-Specific Configu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_____. *Emotion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Wittgenstein, L.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London: Routledge & Paul Kegan, 1961/1921.

[Abstract]

Epistemologico–Historic Foundations of Linguistic Relativity

Sung–Do Kim
(Korea University)

This paper reexamines ideas about linguistic relativity in the light of new interest in the theoretical climate. The original idea is based on the incommensurability of the semantic structures of different languages. On this view, language, thought, culture are deeply interconnected, so that each language might be associated with it a distinctive world view. Throughout this work I utilize the historico–epistemological standpoint to dissect the conceptual structure of this principle. In the introduction I will offer a justification of choice of the theme. Section 1 will address some essential definition of the linguistic principle and insist on the necessity to elaborate a typological spectrum of relativism and universalism. In the second section some important landmarks of linguistic relativity were marked from Plato to Humboldt via Condillac and Herder. I will subdivide the relativity hypothesis into 3 theses which are interlated. In the final section the epistemological structure of the linguistic principle will be analysed in some detail by providing my exposition of Sapir–Whorf hypothesis. By way of conclusion I will present the works of Wierzbicka who demonstrated the lexicons of different languages suggest different conceptual universes. By rejecting analytical tools derived from the English language she proposed instead a natural semantic metalanguage based on lexical universals, which is made up of universal semantic primitives.

In this paper we attempted to construct a general problematic of linguistic relativity, focusing on the Sapir-Whorf hypothesis. We divided this very problematic question into its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dimensions. In particular the ambivalence of Whorf's relativity is discussed in some detail. Also, an archeological survey of this subtle question on the relation between language, thinking and culture was provided. (from Aristotle to Humboldt, via Condillac and Nietzsche). In conclusion this investigation underlines the necessity of preparing the cultural linguistics to enlarge the scope of contemporary linguistics.